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 개요

### ☐ 출장목적

영국은 노후준비 지원 및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에, 한국형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과제명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 출장기간

2025.06.29.(일) ~ 2025.07.05.(일)

### ☐ 출장국가(도시)

영국(런던, 뉴몰든, 옥스퍼드, 엑서터)

### ☐ 출장자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 일정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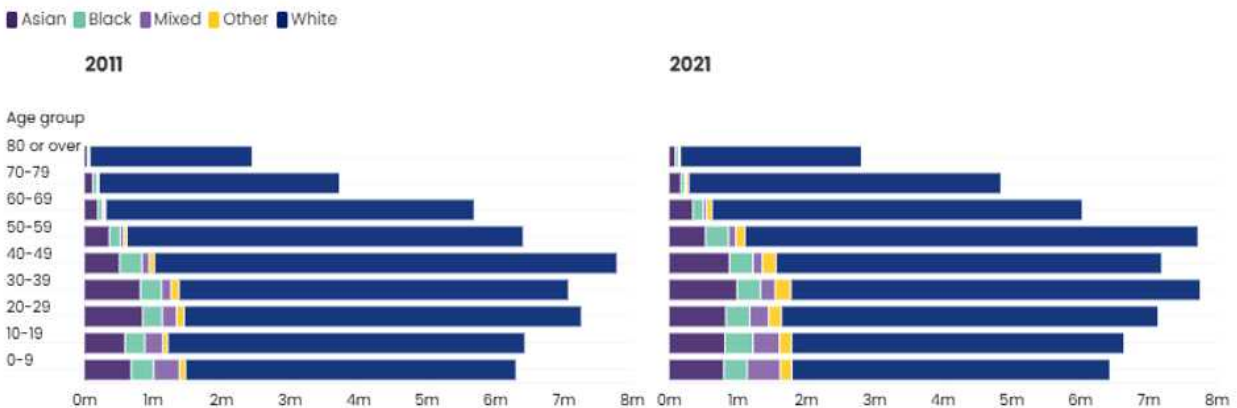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6/29(일)	한국(인천)	-	-	출국
6/30(월)	영국(런던)	Centre for Ageing Better	Carole Easton OBE, Emily Andrews, Aideen Young, Livia Dragomir, Kate Flanagan, Pippa Mannerings	기관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State of Ageing)와 고령화에 따른 주요 제공 서비스 관련 회의
7/1(화)	영국(런던, 뉴몰든)	-	- Soojin Kim(LSE, KIHASA) - Timo Fleckensti	- 건강 현황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동향 관련 회의 - 노동시장 주요 개혁 내용과 고용

			en(LSE)	정책 현황 관련 회의
7/2(수)	영국(런던)	Pension Policy Institute	Suzy Morrissey, Priya Khambhaita, Danielle Elliott	기관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 (Annual Report)와 영국의 연금 제도 현황 및 주요 제공 서비스 관련 회의
7/3(목)	영국(런던)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UK	Lily Parsey, Aruni Ma Himawan, Emily Evans, Patrick Swain, Ben Franklin	인구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국제적 장수 현황 비교와 영역별 주요 프로그램 관련 회의
7/5(금)	영국 (옥스퍼드, 엑서터)	-	- Sunwoo Ryu(University of Bristol) - Soyoung Kweon(The Bridge Group)	- 가족 및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관련 회의 - 성별 노후소득 현황과 서비스 디지털화 전환 관련 회의
7/6(토)~ 7/6(일)	한국(인천)	-	-	귀국

①	Centre for Ageing Better
일 시	2025.06.30.(월), 9:30~11:30
장 소	런던(Centre for Ageing Better)
참석자	[원외] Carole Easton OBE, Emily Andrews, Aileen Young, Livia Dragomir, Kate Flanagan, Pippa Mannerings(Centre for Ageing Better)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 State of Ag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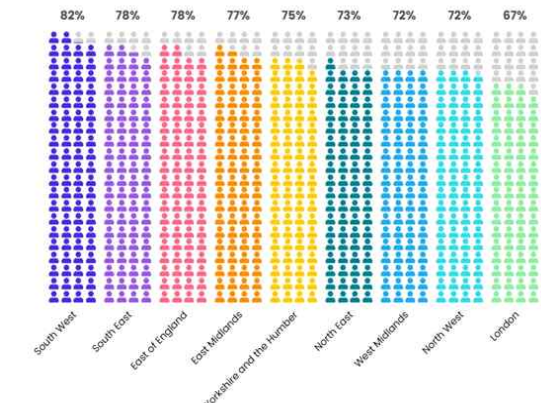
-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로, 올해는 지역별 불평등과 노화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성함
- 영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최근 크게 증가, 65세 이상 인구는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
- 노령인구 현황: 인구 통계 변화, 다양성, 고령화 추세

**2.04 Population (in millions), by age and ethnic group, England, 2011 and 2021**

Source: ONS: Census 2021, ONS: Census 2011 • Download th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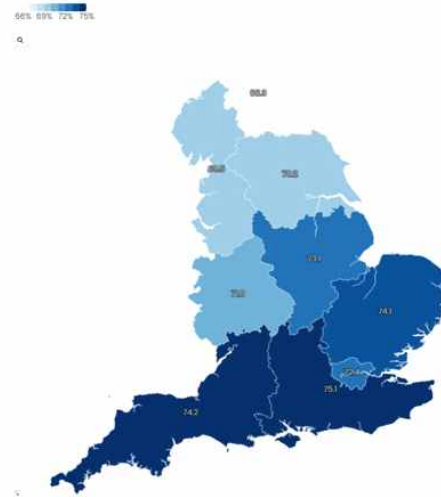
Centre for Ageing Better

- 재정 안정: 지역·소득별 연금 현황 및 비용 부담
- 고용: 노령층 고용률과 연령차별, 직업 지원 문제, 지역별 격차

**Percentage of pensioners with occupational or personal pensions, 2021/22 to 2022/23**

Source: DWP: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for financial years ending 1995 to 2023

Centre for Ageing B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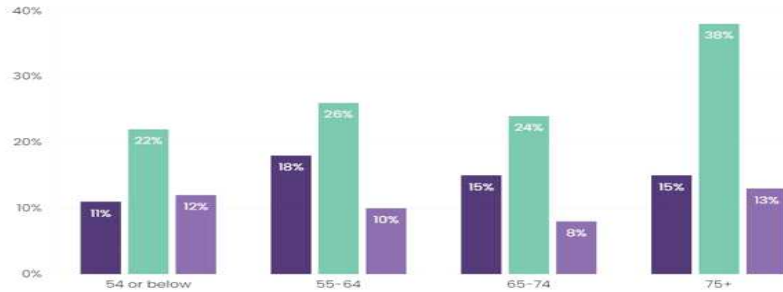
**Employment rate of people aged 50 to 64, September 2023 to 2024**

Source: Ageing Better analysis of data from the Annual Population Survey

Centre for Ageing Better

- 거주 환경: 부적절한 주거 환경, 대응방안,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Owner occupied Privately rented Socially rented



• 74세 이하가 거주하는 민간 임대 주택의 **22-26%**가 비주거용 주택

• 75세 이상 가구주 기준 민간 임대 주택의 **38%**가 주거기준을 미충족

Ageing Better analysis of data from the English Housing Survey  
The Household Reference Person is defined as the "householder", the person in whose name the accommodation is owned or rented. See Technical Report for more information.

Centre for Ageing Better



- 건강과 복지: 만성 질환, 디지털 격차, 사회적 고립 등의 현황

- 사회적 참여: 연령차별주의,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기회

#### ○ 주요 서비스

- Age-friendly Movement는 노화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꾸고, 사회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며, Age Without Limits와 UK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가 대표적임
- Work 부문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령 근로자들이 직장에 오래 머물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Greater Manchester Employability Support가 대표적임
- Homes 부문에서는 노년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적합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의 주택 제공 서비스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알림

#### ○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및 관련 조언

- 기타 '발표자료 참조'

②	건강 및 사회적 고립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1.(화), 9:00~10:30
장 소	런던(Fishcotheque)
참석자	Soojin Kim*(LSE) *보사연 연구휴직중이며, 현재 LSE 방문학자로 근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영국 정부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NHS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외로움 장관(Loneliness Minister)이라는 정식 장관직은 없으나, 2018년에 당시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 가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면서,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전담 장관 역할을 일부 부처 내에서 맡긴 적은 있음.
  - 2018년에 “A Connected Society”전략 발표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부처 간 협력 및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화했음.
  - NHS에서 의사가 환자를 사회적활동, 커뮤니티모임, 자원봉사 등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인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운영하여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국가 사회적 처방 기관(National Academy of Social Prescribing)을 설치하여 의료진과 지역사회 자원, 정책 입안자들을 연결해 사회 처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관련 교육·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함. £180만 규모의 Thriving Communities Fund는 코로나19 회복을 돕기 위해 36개의 사회적 처방 프로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외로움과 관련하여 지표 개발과 이 지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지역내에서 사회적 고립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음. 가령 은퇴자의 경우 지역내 커뮤니티센터 등을 찾아가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구조임
- 영국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한국과 같이 심각하지 않음
- 영국의 주거비는 매우 높아서 부모와 독립한 청년들은 여러 명이 함께 집을 쉼어하며 살고 있음. 따라서 집에 있어도 혼자 고립되지 않고 거실이나 욕실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짐
- 한편 영국은 경제 주요국 중 지난 5년간 고용률이 감소한 유일한 국가임.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NHS 및 관련 의료/건강시스템의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매주 40,000개의 추가진료 예약 제공 지원 및 가장 높은 건강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수준을 보이는 잉글랜드의 20개 NHS 재단의 대기명단을 줄이기 위해 노동력 등 지원
  - 실직/무직에 기여하는 주요 공중위생/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lking therapies, Tobacco and Vapes bill, 비만퇴치운동 등을 확대
  - 치료 및 돌봄의 일부(특히 정신건강 및 근골격질환)로 취업전문가 이용을 확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위한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IPS)도 2028/29까지 14만명 확대 예정

③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1.(화), 15:30~17:30
장 소	뉴몰튼(The Place)

참석자	[원외] Timo Fleckenstien(LSE)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고용 동향, 고용 개혁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2024년 11월 26일 ‘Get Britain Working White Paper’를 발간하였으며 Centre for Ageing Better에서는 ‘정부, ‘한세대만에 가장 큰 고용개혁’이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기존의 접근과 다른 접근인 것은 확실하지만 고령인구에 특정한 개혁 방안이라기 보다는 의료 및 건강, 청년문제에 더 집중한 방안임. 물론 간접적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도 될수 있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이번 새로운 접근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이는 특히 건강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배우고, 일하고, 커리어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 및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mayoral authorities) NHS, 지역의회, 대학, 제3섹터, 고용주들과 함께 비경제활동을 줄이고,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영국의 근본적인 개혁안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위해 지원할 것임(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 도제시스템 확대(어릴때부터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 실업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직업기능을 향상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 고용주의 고용 및 고용유지, 직원 발전을 위한 지원</li> </ul> <p>○ 재정 금융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재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근로소득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대상 노후준비 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li> <li>- 모든 사람이 돈과 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비전을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10개년 재정복지전략을 수립함. 측정 가능한 목표 중심으로 개인,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이익 제공을 목표로 함. 이와 관련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는 아동·청소년 200만 명 추가 확보</li> <li>2. ‘경제적 어려움(financially struggling)’ 및 ‘생활비 압박(squeezed)’ 계층에 속한 성인 중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인구 200만 명 증가</li> <li>3. 식료품 및 공과금 지출에 신용을 자주 사용하는 인구 200만 명 감소</li> <li>4. 부채 관련 조언을 받는 인구 200만 명 증가</li> <li>5. 노후 준비 및 계획에 필요한 이해 수준을 갖춘 인구 500만 명 증가</li> </ol> </li> <li>- 현재 영국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생활비에 압박받는 근로 연령층 중 정기적인 저축을 하지 않는 인구가 약 1,110만 명 있음. 이들은 주로 저소득~중간소득 계층이며, 일부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b>* 재정 금융교육 후 기대하는 변화<sup>1)</sup></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축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매달 혹은 대부분의 달에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사람의 ltn 증가</li> </ul> </li> <li>2. 시스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웹사이트, 앱 등이 저축을 쉽게 만들도록 개선</li> <li>- 소액이라도 저축하기 쉬워야 하고, 인출은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함</li> </ul> </li> <li>3. 참여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에게 저축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확신 제공</li> </ul> </li> </ol> </div>



#### 4. 문화적 변화

- ‘저축은 가치 있고 매력적인 행동’이라는 국가적 담론 형성
-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닌, ‘은행에 저축하는 습관’ 자체를 중시

#### \*변화를 대규모로 확산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

##### ○ 방식방식 1. 저축의 용이성 향상

- 자동화(auto-enrolment), 통합시스템, 기술기반의 개입을 통해 저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예를 들어, 급여 기반 자동 저축(급여 공제 방식)
- 사이드카 저축(sidecar savings) 실험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된 비상금+연금 동시 적립 모델)이 대표적

##### ○ 방식 2. 전 산업 차원의 캠페인 및 메시지 전달

- 소비자 대상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 저축 습관의 가치 전파
- 예를 들어, 부채 상담 시 사용하는 표준 재무 진술서(Standard Financial Statement)에 저축 항목 포함
- 장기적으로는 언론 및 대중 담론을 ‘저축 문화’로 전환

##### ○ 방식3. 정부 프로그램

- Help to Save: 저소득층 대상 장려 저축 제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수혜 자격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4년 동안 1파운드를 저축할 때마다 50펜스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음
- Child Trust Fund: 영국 정부가 2002~2011년 사이 출생한 아이들을 위해 자동으로 개설해 준 장기저축계좌: 향후 7년간 약 600만 명의 청년이 이 계좌의 저축을 상속받게 됨

④	Pension Policy Institute
일 시	2025.07.02.(수), 15:00~17:00
장 소	런던(PPI)
참석자	[원외] Suzy Morrissey, Priya Parsey, Danielle Elliott(PPI) / 성혜영(국민연금공단)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p>○ 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단체로, 법률, 기술,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 연금,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함</p> <p>○ 정책의 예상 결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에 내재된 상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지원, 노후 소득보장(공적·사적 연금) 정책 구조 분석, 개인의 노후준비 행동 유도 전략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p> <p>○ PPI는 매년 Annual Report를 발간하며, 리서치리포트, 브리핑노트, 상담 응답, PPI 요약을 작성하여 제공함</p> <p>○ Money and Pensions Service(Ma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정 역량 및 부채 상담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고, 재정적 안녕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li> <li>- MaPS의 대표 소비자 서비스 플랫폼인 MoneyHelper는 예산, 부채, 금융교육, 연금 상담, 연금 수령 안</li> </ul>	

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예약을 통해 연계해주고, 채팅/전화/대면 상담 연결이 가능함

- MoneyHelper는 크게 8분류로 나누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 MaPS와 MoneyHelper의 체계 하에 진행 중인 Pension Wise는 연금 상담 서비스로, 50세 이상이고 확정기여형(DC) 연금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연금에 대한 정보, 수령 방법, 세금, 사기 예방법 교육,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영국에서 예비은퇴자 관련 재무 관련 상담 경험을 조사한 자료가 있음

- 2024년 발간된 “기술 보고서: 현재 영국 연금 제도는 긍정적인 노후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니까? 데이터를 통한 진행 상황 추적”이며, 은퇴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55~64세)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재무 관련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은 1/4 미만으로 확인됨. 전문 재무 자문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은 고연령층(35세 이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자동화된 온라인 상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연금 가입자의 재무 관련 상담과 재정 결정에 관한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DC 적립금 활용 방법에 대한 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은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또는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조언이나 안내 없이 DC 저축을 이용하면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이지 아닌 결정을 내릴 위험이 높아짐
- 무료 연금 와이즈 가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년 DC 적립금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이드를 받은 사람 중 거의 90%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연금 유연성 도입과 함께 '연금 와이즈'라는 새로운 대국민 안내 서비스도 함께 도입되었음. 연금 와이즈는 DC 저축을 보유한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전화 또는 대면으로 무료로 독립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 2023/24 회계연도에는 약 11,000건의 대면 상담과 170,000건의 전화 상담이 있었음. 예약 외 에 도 연금 와이즈 웹사이트를 통해 약 78,400건의 셀프 서비스가 진행됨 2023/24년에는 대면 예약의 약 76%, 전화 예약의 약 65%만 참여하여 예약 건수 와 실제 참여율 간의 격차가 존재함. 2022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연금 규정이 시행되었음.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 와이즈 예약을 제안하는 등 연금 연금에 접근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와이즈의 안내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네티지'를 제공
- 최근 연금 고객들 사이에서 자문 이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반면, 인출 고객들의 자문 이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임
- 2015년 연금 유연성 도입 이후, 인출형 상품 구매 고객의 경우 규제 대상 자문 이용률이 감소했지만 연금 구매 고객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2018년부터는 연금과 인출형 고객 모두에서 비자문 구매가 증가함. 그러나 2023년에는 독립적인 자문을 받는 연금 고객의 비율이 2022년 17%에서 27%로 크게 증가함.
- 구체적인 결과를 조언과 안내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재무 조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성과는 조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름
- 재무 조언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고 일반 저축자들과 소통하기 어려움. 자산 및 자산 설문조사에 대한 이전 분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재무 자문을 받은 개인은 재무 자문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2014~2016년에 연금 및 금융 자산이 평균 47,700파운드 증가했음. 또한 자문 경험과 연금 저축에 대한 최종 결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조언을 받지 않고 DC 적립금에 접근한 사람들의 94%가 연금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출 옵션을 수락한 반면, 조언을 받은 소비자들은 35%만이 인출 옵션을 수락했음

1) <https://maps.org.uk/en/media-centre/press-releases/2020/uk-strategy-for-financial-wellbeing-sets-out-ten-year-vision-to-improve-millions-of-lives> (pp. 20-21)



⑤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UK
일 시	2025.07.03.(목), 12:00~14:00
장 소	런던(ILC UK)
참석자	[원외] Lily Parsey, Arunima Himawan, Emily Evans, Patrick Swain, Ben Franklin(ILC UK) / 성혜영(국민연금공단), Soojin Kim(LSE)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p>○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후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부, 정책 입안자, 기업, 고용주가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도움</p> <p>○ 전 세계 20개국에서 400개 이상의 정책 보고서 발간, 500개 이상의 행사 개최, 건강, 수명 등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파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과 리포트 자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p> <p>○ ILC UK에서는 크게 5분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며, 부문별로 블로그, 이벤트, 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비디오, 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e and Society 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는 올해 10번째 연례 미래 고령화 컨퍼런스를 개최함. “2025년 미래 고령화: 장기 계획” 컨퍼런스는 장수 분야 정책 입안자, 기업인, 전문가들이 모여 장수를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li> <li>- Finance and Wealth 영역에서는 “세대 간 계약 강화: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투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모든 세대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Health and Care 영역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예방 건강에 최소 6%를 투자하도록 추진해 왔으며, “건강한 고령화 및 예방 지수”를 발간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서 121개국의 고령화 지표를 발표함</li> <li>- Infrastructure 영역에서는 고용주와 정부가 평생 학습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의 재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시설에 대해 모색함</li> <li>- Productivity 영역에서는 미래 지향적 사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20년간 더 길어질 수명에 대해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조명하고,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장수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법에 대해 구상함</li> </ul> <p>○ G20, WHO, UN, 16개의 파트너 국가, ILC 유럽 네트워크, 대학, 민간 부분, 전문가 및 학술 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여 장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친화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선구적인 솔루션을 모색함</p> <p>○ ILC에서는 ‘건강노화 예방 지수(Healthy Ageing and Prevention Index)’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를 실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3개국 대상 6개 지표로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함. 현재 2019년과 2022년 발표 수치가 있음</li> <li>- 6개 지표는 수명, 건강수명, 근로수명, 소득, 환경성과, 행복임</li> <li>- 2022년 기준 지수 상위국을 보면, 1.아이슬란드, 2.스위스, 3.스웨덴, 4.싱가포르, 5.노르웨이, 6.호주, 7.네덜란드, 8.뉴질랜드, 9.덴마크, 10.룩셈부르크 순임. 영국은 말타와 함께 14위, 한국은 24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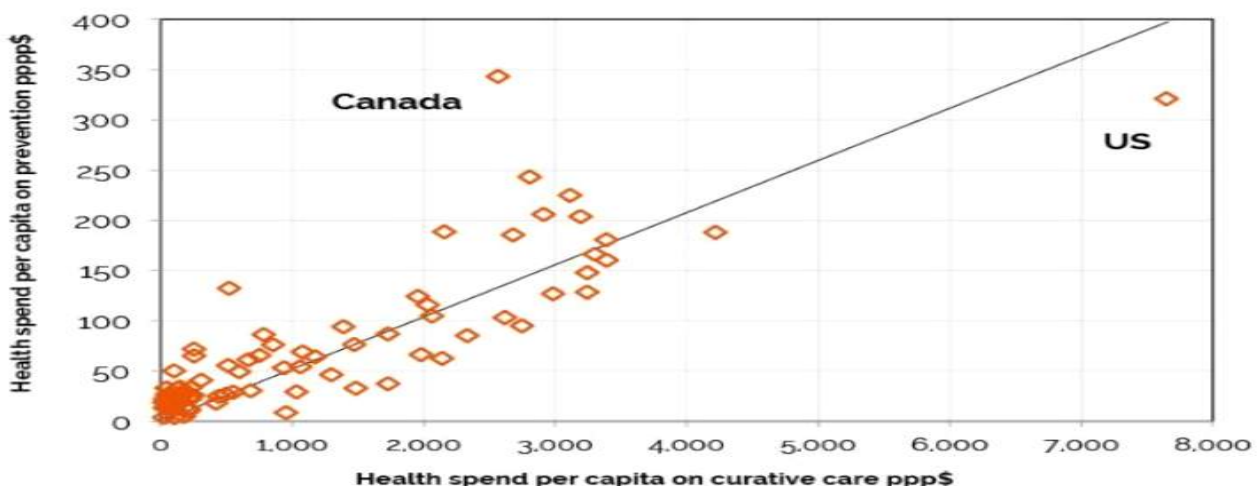


- |            |            |             |
|------------|------------|-------------|
| 1. 아이슬란드   | 19. 쿠웨이트   | 37. 태국      |
| 2. 스위스     | 20. 일본     | 38. 폴란드     |
| 3. 스웨덴     | 21. 키프로스   | 39. 우루과이    |
| 4. 싱가포르    | 22. 독일     | 40. 리투아니아   |
| 5. 노르웨이    | 23. 프랑스    | 41. 칠레      |
| 6. 호주      | 24. 대한민국   | 42. 크로아티아   |
| 7. 네덜란드    | 25. 에스토니아  | 43. 에콰도르    |
| 8. 뉴질랜드    | 26. 슬로베니아  | 44. 멕시코     |
| 9. 덴마크     | 27. 스페인    | 45. 그리스     |
| 10. 룩셈부르크  | 28. 벨기에    | 46. 카타르     |
| 11. 아일랜드   | 29. 이탈리아   | 47. 사우디아라비아 |
| 12. 핀란드    | 30. 체코 공화국 | 48. 헝가리     |
| 13. 캐나다    | 31. 미국     | 49. 중국      |
| 14. 말타     | 32. 코스타리카  | 50. 페루      |
| 14. 영국     | 33. 파나마    |             |
| 16. 오스트리아  | 34. 포르투갈   |             |
| 17. 아랍에미리트 | 35. 라트비아   |             |
| 17. 이스라엘   | 36. 슬로바키아  |             |

- '건강노화 예방 지수'는 국가별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은 기대수명 6개월, 건강수명 5개월 증가함.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기대수명 4개월, 건강수명 2개월 증가함

구분	기대수명(세)	건강수명(세)	근로수명(세)	소득 (GDP/인구, 고정가격, ppp)	환경성과 (0~100)	행복 (0~10)
영국	82.2	70.5	31.1	47.92	77.7	6.66
한국	84	73.3	32.11	33.7	46.9	6.11

- 전체 정부 예산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들 지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임





○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및 관련 조언

- 기타 '발표자료 참조'

⑥	가족 및 1인 가구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4.(금), 10:00~12:00
장 소	옥스퍼드(University of Oxford)
참석자	[원외] 유선우 교수(University of Bristol)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동향

- 영국에서도 은퇴한 남성들의 외로움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처럼 일 중심의 문화로 인하여 가족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들은 존재하나 주로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관계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예: 아동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서 제공하고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인 Childline).

○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 영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혼자 사는 사람 수가 16% 증가해서 770만 명이 됨. 같은 기간 영국 인구는 13% 증가함. 2039년까지는 1인 가구가

<p>1,0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영국에서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상황과 웰빙에 대한 분석을 통계청이 실시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사는 사람 증가가 주로 나이 많은 층에 집중됨.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5-44세 혼자 사는 사람 수는 16% 감소했지만, 45-64세 혼자 사는 사람 수는 53% 증가함. 이 증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도달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 연령대 사람들 중 이혼하거나 싱글인 사람이 15년 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음.</li> <li>-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임. 예외적으로 Council Tax가 혼자 살 경우 25% 감면됨. 1인 가구가 빈곤 상태에 처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덜 받는 경향이 있음.</li> <li>-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뉴스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2024년 국회 회의에서도 거론되었음. 그러나 싱글 패널티나 싱글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논의는 없음.</li> </ul>	
--	--

⑦	여성과 서비스 디지털화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4.(금), 18:30~20:30
장 소	엑서터(Dinosaur Cafe)
참석자	[원외] 권소영 박사(The Bridge Group)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p>○ 사회복지서비스의 디지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에서 단순 서비스 신청은 이미 대부분 디지털화 됨. 예를 들어 유니버설 크레딧 신청, 연금 조회, 주소 변경, 세금 신고 등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처리 가능함. 그러나 복잡한 서비스는 여전히 디지털화가 제한적임.</li> <li>- 비용 및 절감 효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도입 관심 많으나, 실제 적용은 단순 거래 서비스 위주임. 복잡한 서비스로 확장 제한적임.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정량화 어려움. 서비스 단위별 분석 접근 필요함. 인건비 등 인력 관련 비용 절감 가능성 있음. 단, 교육·지원 비용 등 변수 존재함. 디지털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절감 효과 상쇄 가능성 있음. 다양한 서비스 접근 경로 확보 시 비용 효율성 제고 가능함.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부족, 정보 단절이 디지털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li> <li>- 사회적 영향 및 코로나19 교훈으로는 디지털화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필요함. 공공 와이파이, 오프라인 병행 제공 등 다양한 접근성 확보 방안 필요함. 코로나19로 디지털 서비스 사용 증가함. 팬데믹 통해 디지털 채널 확산 및 지속 이용 기반 마련됨.</li> </ul> <p>○ 여성과 노후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Gender Pensions Gap measurement 발표</li> <li>-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증진하는 정책(free childcare extension)</li> <li>- Pension Credit- 저소득 연금대상자에 대해 소득 지원</li> <li>- Specified Adult Childcare credits-손주를 돌보는 조부모(under state pension age)에게 부모의 credit을 양도할 수 있음(여성만 대상은 아님)</li> <li>- 논의중: Auto-enrolment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 논의중이나 올해는 계획없음</li> <li>- 이혼시 연금소득도 재산분배에 포함</li> </ul>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2.(수)





2025.07.03.(목)



2025.07.04.(금)



## An Overview of Korea's Old Age Preparation Services

30 June 2025.

Namhui Hwang, Department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nding the way to tomorrow  
 through today's efforts and decisions

### CONTENTS.

#### CHAPTER 1

About us

#### CHAPTER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 CHAPTER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CHAPTER 4

Ques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nding the way to tomorrow  
 through today's efforts and decisions

# 1. \_\_\_\_\_

## About us



### 1 Aboutus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eople  
with People  
in Mind



#### Mission

Charting forward-looking policies that lead the future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is built on the belief that robust research evidence leads to better policy decisions and performance, and, in turn, to improved living standards. Thus KIHASA's two-fold mission: providing empirical and analytical bases for short-to long-term policymaking and promot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policy issues concerning their health and welfare.

<https://www.kihasa.re.kr/en>

### History

[Jan 29, 1999] Transferred to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c 30, 1989] KIPH renamed a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with social security added to its research 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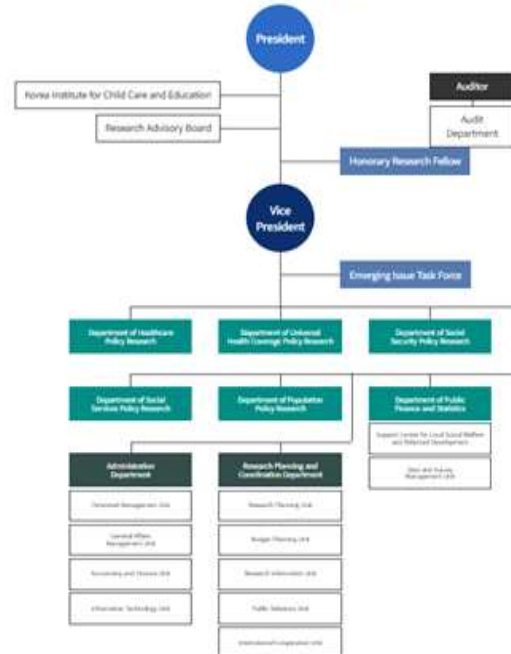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founded with the merger of KIFP and KHDl

[Apr 19, 1976]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l) founded

[July 1, 1971]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founded, with NFPC incorporated

[July 20, 1970]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Centre (NFPC) founded

### Organization



### Key features

- System evaluation and policy development on healthcare, national pension, medical insurance, social welfare, population and social issues
- Production of national basic statistics for policy formulation and development in the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
- Developing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the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
- Supporting for key government policy committees in the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
- Gathering public opinion on key health and social care policy issues
- Technical information exchange, joint research and support with domestic and overseas professional organisations related to 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 Commissioning of research services of public interest from government,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sations
-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 Other business necessary to fulfil the researcher's objectives

### Headcount (as of end-2024)

Separation		Number of people (people)
Research positions	Director level (PhD)	105
	Research support	54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Expertise	24
	Administrators	26
Total		209



## 2.

##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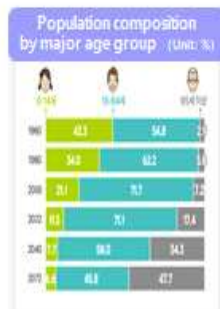


###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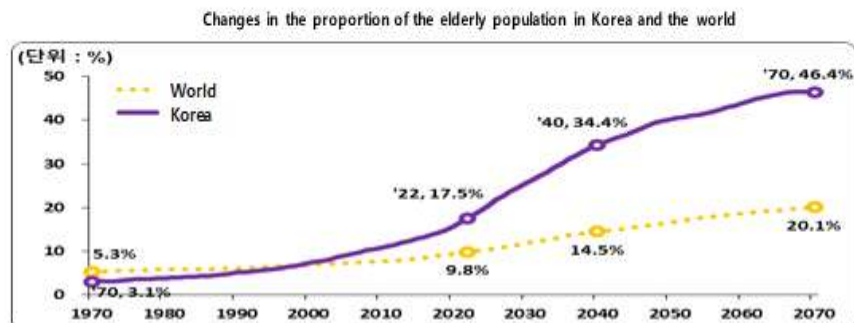


#### The advent of the super-aged society and the evolution of ageing

- At the end of 2024, South Korea entered the super-elderly society by resident registration, and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and over in 2025 will be 20.6 per cent.
- South Korea's demographics are rapidly ageing, with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and over expected to increase from 17.4 per cent to 47.7 per cent between 2022 and 2072.
- However,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projected to decline from 71.1 per cent to 45.8 per cent over the same period, resulting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ocial support burden.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Prospective Population Projections: 2022 to 2072



Notes: Figures for Korea for 2022 are based on the finalised version of 'Population Division (14 December 2023),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2022-2072'.

Source: Statistics Korea (5 September 2022), Popul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World and Korea Based on the 2021 Prospective Population Proj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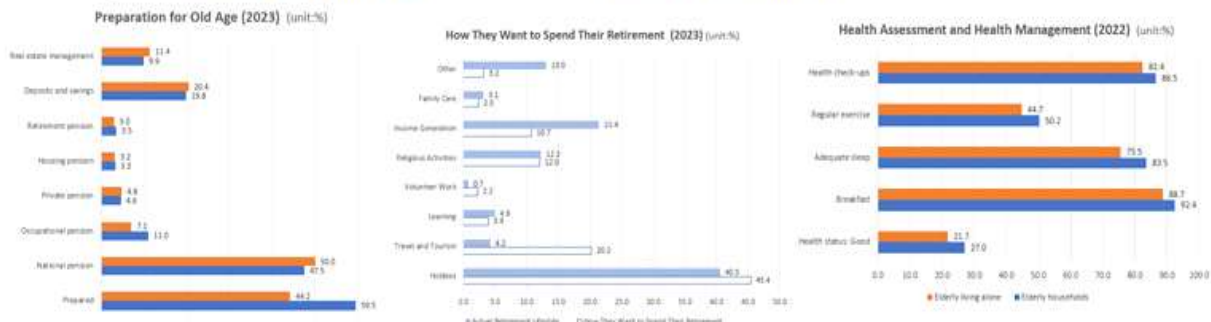


##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The contributory national pension, introduced in 1988, is only available to 51.2 per cent (in 2023) of those aged 65 and over.  
The pension entitlement rate is around 90 per cent, including the non-contributory basic pension (around £ 175 per month) introduced in 2008.

### High rates of old-age poverty and growing old-age anxiety

- The elderly poverty rate is 39.8 per cent in 2023,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with more than half of pensioners living on less than £325 per month
- Changing demographic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ther factors are increasing future uncertainty and widening income polarisation.
- 2.14 millio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n 2024 (37.8% of all seniors) and the number is growing. In the future, seniors living alone will face overlapping risks, not only financial but also isolation, health, etc.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lder People's Statistics 2024

##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 노후준비의 중요성.

숫자로 알아보는  
고령화 문제

43.3%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의 비율  
(통계청, 2021)

277만원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21)

### The Importance of preparing for old age

Examining the issue  
through numbers

43.3%

aged 50+ who have not  
prepared for old age  
(Statistics Korea,  
2021)

2.77million won

Monthly adequate living cost  
for an individual

1위

OECD 국가 중  
노년빈곤율

2025년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177만원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21)

1st

Old age income poverty  
rate among OECD  
countries

2025 years

Entry into super-aged so-  
ciety: 20% of total

1.77million won

Monthly adequate living  
cost for an individual  
(National Pension)

직접 수 있는 노후 자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W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now before it's too  
late.

Source: 1) (Left) National Pension Service Central Later Life Preparation Centre website  
2) (Right) ChatGPT 4o looked at the picture on the left and drew it and translated it.

##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 Preparation for old age remains insufficient for many individuals.

- (Composite) All citizens scored 69.8 in overall preparedness for old age across four areas, increased 2.3 points compared to 2019.
- (Ranked by domain) Health (74.3) > Finance (67.8) > Interpersonal (64.7) > Leisure (60.1).
- (Changes in areas) Over the past five years, finance (7.5 points) has increased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6 points) have decreased. Health and leisure have remained flat or increased slightly.

(Unit: dots)

Separation	Year 2024 (A)	2019 (B)	Increase/Decrease (A-B)
Comprehensive	69.8	67.5	2.3
Interpersonal	64.7	67.3	-2.6
Health	74.3	74.1	0.2
Leisure	60.1	59.6	0.5
Finance	67.8	60.3	7.5

Note: Results based on a national sample of adults ages 35-69.

## 2 The need to prepare for old age

### Public interventions are needed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ow levels of retirement preparedness.

- With increased longevity, individuals need to take personal steps to prepare for old age and avoid age-related anxiety.
- Old-age preparation goes beyond finances—it's a multifaceted process involving health, social life, leisure, and more.
- Preparing individually is not enough—it needs to be reinforced with social safety nets and policy-level interventions.

Although it's essential to prepare evenly for various aspects of life, public discourse and current research remain heavily centered on economics.

### 3.

##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Public sector provision of Old age Preparation Service in four key areas of life

- Since 2016,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moted the concept of proactive well-being as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nhancing awareness and encouraging individual action in preparation for old ag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Related Service (Article 2 of the ACT ON SUPPORT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 "preparation for old age" means any proactive action against poverty, disease, idleness, loneliness, etc. that a person might suffer in old age;
- "old age preparation service" means diagnosis, counseling, education, referral to relevant agencies, follow-up management, etc. provided for proper preparation for old age in areas such as finance, health, leis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 The Act on Support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promotes old-age preparation services and requires a comprehensive plan to be developed every five years.

- The government has completed the First Basic Plan (2016-2020), is working on the Second Basic Plan (2021-2025), and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Third Basic Plan (2026-2030).
- The Second Basic Plan calls for a nationwide survey on old-age preparedness to be carried out one year before the plan's implementation.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Government Support for Old-Age Preparedness(Population Polic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In Korea where welfare systems, includ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are still underdeveloped, 'self-prepared retirement'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because of rapid aging and the weakened sense of family support.
- The government recognised the need for systematic support to ease the burden on society in preparation for an ultra-elderly society and to help each citizen prepare for a happy old age, and introduced the 'Old Age Preparation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 Conducting periodic surveys on retirement planning to ensure that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are based on actual conditions and needs at the national level



Sources: ChatGPT 4o looked at the picture on the left and drew it and translated it.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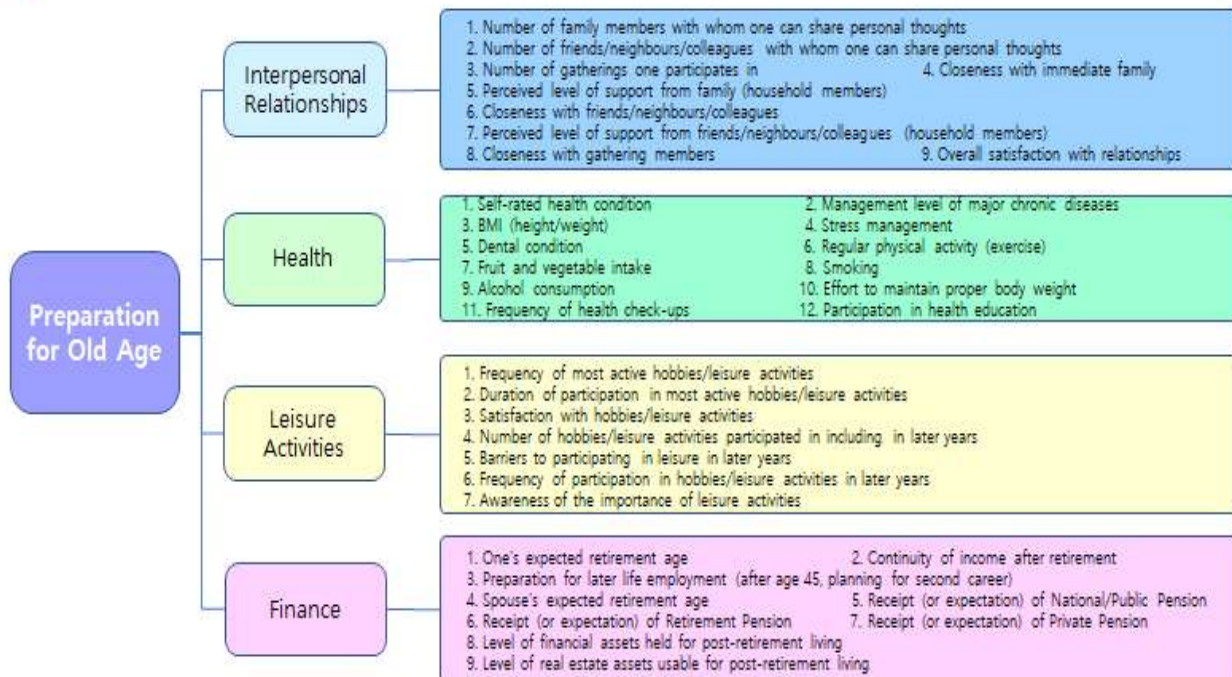
#### (Diagnostic) Retirement readiness diagnostic indicators: 37 indicators in 4 areas, divided by area and overall

- Tak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your current retirement readiness with the Retirement Readiness Checklist
- After the diagnosis, a comprehensive diagnosis re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is provided, consisting of a comprehensive analysis, a summary of the diagnosis results in four areas, and detailed diagnosis results.



Source: Population Polic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Consultation) Personalised counselling based on diagnosis results

- (Professional counselling) Explanation of the deficiencies in each of the four areas after the diagnosi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action tasks and goals
- (In-depth consultation) Comprehensive financial planning to achieve your financial goals based on your wishes after professional consultation

#### Connecting clients to other services if they need professional services from other organisations after the consultation.

- (Local government) If you wish to be connected, register wit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omputer system and transfer to the National Local Government Business System
- (Specialised organisations) Out of a total of 24 organisations, 2 (Housing Pension, Affordable Finance Support Scheme) will be transferred electronically to the relevant organisations, and 22 services wi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customers.

- During the service introduction phase,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s were provid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nationwide branches, but in order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the service, local governments were designated as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centres to provide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s, and the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Act of 2021 was amended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retirement preparation services.

- The service is also available online for self-diagnosis of retirement readiness. Not only can you check your own retirement readiness level, but you can also make an appointment for in-person diagnosis, counselling, education, etc. However, the online service is not activated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Follow-up) Provide lifecycle-specific information and re-diagnosis reminder service to those who have passed 1.3.5 months after diagnosis and consultation to encourage implementation of action tasks**

- 1, 3 months after diagnosis, clients will receive useful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consumption habits, health, leis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tc. according to their age.
- 5 months after the diagnosis and consultation, we provide a 'self-reassessment reminder service' to help clients review whether they have implemented the action items and their level of retirement readiness.

**(Education) Professional lecturers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provide inform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induce behaviour change through lectures on financial, health, leisure and interpersonal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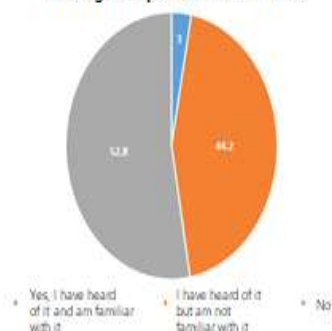
- Single lectures and retirement preparation academies (4 or more lectures) in each of the four areas, with group counselling and 1:1 professional counselling if necessary

### 3 Old age Prepa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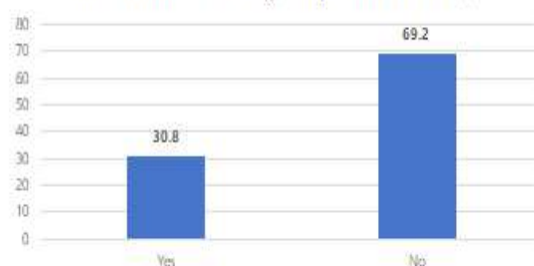
**Public awareness of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is very low,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low.**

- The proportion of people aware of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is 3.1 percent, unchanged from five years ago (3.4 percent in 2019)
- Given that only about 31% of people are willing to use old-age preparation services, there is a need to incentivize action based on this intention. As a first step,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vices.

**Awaren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Intention to use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4. \_\_\_\_\_

## Question



### 4 Question



#### 1) What are your views on longevity from a UK and global perspective?

- South Korea has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and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there is a perception that an unprepared retirement is a disaster rather than a blessing. This view is due to the lack of public pensions in Korea compared to the UK and other welfare-advanced countrie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survive financially and socially after retirement. I would like to know the social climate in the UK in this regard.

#### 2) Are there any trends or issues about 'digitalisation of services' in the UK?

- I saw a British film a few years ago (can't remember the title) about applying for welfare services in the UK has become so difficult because they've switched from face-to-face to phone and internet, making it harder to get in touch with the person in charge (e.g., the call didn't go through).
-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the spread of a contactless culture in many countries, and services are being digitised in response to labour shortages. However, it seems that online-based services can lead to disparities in accessibility based on digital capabilities, income levels, etc. and further spread inequality.

### 3) What do people in the UK think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 What is the UK's ideal image of old age?
- If my question is a little vagu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things like "being able to afford to travel abroad with friends once a year," or "being able to enjoy current hobbies, leisure activities, and exercise in later life, supported by good health even in old age."

### 4) Is there a service in the UK similar to Korea's Old age Preparation Service?

- In Korea, it is known that Age UK offers financial and health advice. Is Age UK's counseling service active?

### 5) Are there any issues, policies for 50+ in the UK?

- In South Korea, the 50-60 age group is known as the 'New Middle-aged', and there is an interest in keeping these baby boomers contributing to society for longer.
- In addition, the factual retirement age in South Korea is 72 years old, so this is a generation that is still able to save for their retirement and is actually at the peak of interest in preparation for old age. How can we target the 5060s and effectively support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 6) Are there any life-cycle based health promotion or preventive public programmes in the UK?

- In Korea, there are very few except for national health check-ups for all citizens and for life transition periods (40 and 66 years old). However,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have started programs that reward points or cash for walking at a certain level through smart watch.

# Thank yo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research in medicine,  
public health, sports and geriatrics